

대학의 디자인 교육과 공업 디자인: 디자인 교육

1972

디자인진흥원사

- 제2대 조태호 이사장 취임
- 디자이너 등록제 실시
(상공부 고시 제8287호)
-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
(ICOGRADA) 가맹
- 중국 섬유시찰단 내방
- 일본 의장상품조사단 내방

한국 디자인사

-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상업미술전공, 공업미술전공,
공예미술전공으로 개편
- 한국디자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KSID) 창립
- 한국디자이너협의회(KDC) 창립
-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창립

한국 사회사

- 구미전자공업단지 제1단지
조성 완료
- 7·4남북공동성명
- 10월유신(유신독재) 시작

우리나라 대학에서 초기 디자인 교육은 도안, 의장, 응용미술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의미로 시작됐다. 1946년 서울대학교가 발족하면서 설치된 예술대학 미술부에 도안과가 개설됐고, 1947년 이화여자대학 교의 예림원 미술학부에도 도안 전공이 신설됐다. 서울대학교는 1951년에 도안과를 응용미술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에도 여러 학교에 예술 또는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지만 1960년대로 접어들 때까지 디자인 관련 학과라 할 만한 곳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 및 수출이 조금씩 활발해짐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디자이너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에 디자인이 필요해짐에 따라 디자이너 공채 등 디자인 관련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디자인 관련 전공 신설과 정원 증가로 이어졌다.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생활미술과가 신설됐고, 1964년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에 도안과가 생겼다.

1960년대 초 산업 발달의 다른 한편에서는 제3 공화국이 고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으로 대학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961년 12월, 「학교정비기준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증원을 반복했는데, 이때 오히려 디자인 관련 학과의 학생 수는 대폭 늘어났다. 당시 대학 정비안에는 실업계 학과를 존속시킨다는 원칙이 있어 실업계로 분류된 디자인 관련 학과는 폐과나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공예와 상업미술, 응용미술, 생활미술 등으로 지칭되던 대학의 교육 체계에 ‘공업’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1968년 서울대학교는 응용미술과에 공업미술을 전공 과목으로 추가했으며 1972년에는 상업미술전공, 공업미술전공, 공예미술전공으로 체계를 정비했다.(1976년부터 미술 대신 디자인이라는 용어 사용)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에도 공업도안과가 생겼으며 이외에도 1970년대 들어 중앙대학교 공예과, 국민대학교 장식미술과 등에서 공업 디자인 교육이 이뤄지며 점차 여러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디자인 교육이 점차 체계를 정비해나가던 시기, KIDP 역시 1972년부터 디자인 관련 전공 학생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하며 디자인 교육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1세대 디자이너의 뒤를 이어 점차 2세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교육 현장에서 중심 역할을 맡으며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물론, 교육 방식도 현대화한 시기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통해 외국의 각종 정보와 문화가 유입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이 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성장하며 기업에서 더 많은 디자이너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디자인학과 및 전공들이 폭발적으로 신설되기 시작했다. ‘디자인’이란 말이 대학의 공식 학과 명칭으로 정착되고 광고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으로 전공이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80년대 들어서의 일이다. 1985년 한양대에는 디자인 박사 과정이 도입되었는데, 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학술적 체계화를 위한 시도였다. 이밖에도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학(KIT, 현 KAIST)에는 산업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국내 디자인·공학 융합 교육 과정의 효시가 되었다.